



## 제8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성료 광화문광장서 개최 ... 인협, 고인쇄 체험장 조성

서울인쇄센터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 후원, 한국제지, 한국아그파산업, 한국하이델베르크가 협찬한 제8회 서울인쇄문화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제8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는 ‘인쇄로 누리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중심지인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축제에 참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쇄문화축제는 제8회 서울인쇄대상 수상작 전시, 역대 서울인쇄대상 수상작품 및 수출인쇄물 전시, 친환경 종이 전시, 생활인쇄물 전시, 디지털인쇄 체험, 홍보영사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함께 고인쇄전시 및 체험장을 조성했다. 고인쇄 전시 및 체험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 뿐만 아니라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인형으로 표현한 직지 금속활자 주조과정 디오라마 및 홍보패널 등을 전시했다.

### 서울시청 시민청서 서울인쇄대상 시상식 개최

축제 첫날인 26일 오후 3시에는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제8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재

윤 민주당 국회의원,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최강선·이진화·김명선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명예회장, 김정전 청구공회회소 회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남원호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한 작품으로 영예로운 상을 받은 수상자와 고품질의 인쇄물 제작에 힘써주신 인쇄기능인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올해 인쇄문화축제는 인쇄로 누리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인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행복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행사가 인쇄물 품질 고급화를 이끌어나감은 물론 인쇄산업의 대표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쇄는 단순히 종이에 글자를 새기는 출판의 개념을 넘어 소재와 IT산업과의 접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남원호 서울인쇄대상 조직위원장

축사를 하고 있는  
김상범 서울시 행정부시장

축사를 하고 있는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

축사를 하고 있는  
이진화 서울시의회 의원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이재한 심사위원장

첨단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인쇄산업은 몇 개 안남은 귀중한 도시산업중 하나다. 서울시 입장에서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인쇄산업이 첨단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제적·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은데 그중 하나가 인쇄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문화산업의 수출량도 상당하고, 인쇄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도 인쇄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화 서울시의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선친이 인쇄인이어서 인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쇄야말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일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인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시상식 후 김재운 국회의원은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연합회장 등 귀빈과 인쇄문화축제 행사장소인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참여업체 부스를 돌아봤으며, 친환경 용지 부스에서는 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 제8회 서울인쇄대상에 일진커뮤니케이션 선정

2013서울인쇄대상은 (주)일진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신오식)이 T3절 5색으로 인쇄한 ‘아텔휴 분양홍보 카탈로그’에게 대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표지용지는 플라이크 330g, 내지용지는 랑데뷰 190g, 별책은 스노우 120g을 사용했다. 표지 후가공은 은박과 실크인쇄를 사용해 수입지의 특성을 살렸으며, 내지는 워터베이스 전체코팅, 제책은 PUR 제책과 자석형 싸바리 케이스를 사용했다. 금상 책자인쇄부문에는 (주)현대아트컴(대표이사 강순옥)의 ‘동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총서 제5책)’, 홍보인쇄부문에는 서진문화인쇄사(대표 이규복)의 ‘퓨마제품 카탈로그’, 생활인쇄부문에는 동양상사지기인쇄(대표 김인호)의 ‘블라스트팩(케이스) 특허 제10-1233347호’가 선정됐다. <참고 프린팅코리아 2013년 10월호 (통권 136호)> 한편 서울시공자표창은 김영우 원일프린팅 대표, 노신건 거산문화사 대표, 김영태 신신문화인쇄(주) 대표이사, 모종근 대광그래픽스 대표, 최규만 덕원비앤씨 대표가, 조달청표창은 김옥동 동국문화인쇄 대표, 이능형 (주)명진씨앤피 대표이사, 황문식 한동문화사 대표, 현명길 대명아이티에스(주) 대표이사, 조을기 범진문화인쇄사 대표가 수상했다.☺



1. 서울인쇄대상 시상식 전경 2. 서울인쇄대상 수상자들 3. 인쇄문화축제 고인쇄체험장에서 직지체험을 하고 있는 김재운 국회의원